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잡지 특집을 통해 본 번역출판



최성일*

우리나라 전체 출판물에서 번역물은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 체감하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다. 나는 번역서와 국내 저자의 책을 고루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독서의 결과는 6대 4 정도로 번역서 쪽에 치우친다. 번역서보다 국내 저자의 책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위론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이러한 불균형은 독자에게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저자의 책이 번역서에 비해 한결 잘 읽히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번역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마침 계간지 두 곳이 최근호에서 번역관련 특집을 마련했다. 두 잡지가 주로 다루는 분야와 잡지의 성격은 다르지만 번역특집의 기획의도와 진지한 접근은 별 차이 없다. 어린이책 전문지와 문학 전문지의 번역특집을 통해 우리 번역출판의 현주소를 살펴보겠다.

번역, 얻은 것과 잃은 것

〈창비어린이〉(통권 12호, 2006년 봄호) 특집 ‘번역,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번역문학이 우리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담론화는 안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좌담—어린이문학과 번역」의 초입에서 〈창비어린이〉 김경연 편집위원은 특집의 기획의도를 이렇게 부연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통계치를 보면 2004년 전체 출판물의 29%가 번역물이라고 해요. 이 중에 일본어 책 비중이 매우 큰데, 이는 만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동청소년문학에서는 약 38~39%가 번역물로 집계되는데, 수치를 단순 비교해봐도 전체 출판물의 번역 비중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하지만 담론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좌담에는 어린이책 출판 관계자 네 분과 동화 읽기모임 회원 한 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의 번역출판풍토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린이문학 평론가이면서 번역가이기도 한 출판사 ‘바람의아이들’의 최윤정 대표는 지난 십 몇 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번역되어 나왔”지만, “번역문학의 두께라는 게 두께답게 있는 것

*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같지”는 않다고 진단한다.

외국과 동시에 출판되는 어린이문학의 동시대성을 예전과 다른 점으로 보는 전문 번역가 집단 ‘햇살과나무꾼’의 박정선 기획실장은 번역자 입장에서 “원본을 중시하는 풍토”가 된 것을 결정적인 변화의 양상으로 든다. 보림출판사 최정선 편집주간은 좌담 참석자들이 어릴 적에 읽은 책들이 1990년대까지 그대로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도 외국의 새로운 어린이문학 작품들이 꽤 번역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가 섞여 있는 것 같다”는 독자의 시각을 드러낸 일산동화읽는 어른모임의 최영미 회원은 이런 흐름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꾸준한 독자 모니터 활동을 제안했다. 좌담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적지 않지만 참석자별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대목을 하나씩 인용하겠다.

“작품의 독보성요. 이걸 번역할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도 되지만, 국내 작가 작품을 출판사에서 출간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도 과연 이 작가만이 드러낼 수 있는 걸 담은 작품이냐, 이걸 보잖아요. 일본 작품인데, 일본 작품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담았다기보다 이 정도는 솔직히 우리 작가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을 때는 그 책은 낼 필요가 없죠.” (박정선)

“미국에서 만든, 미국식 다문화가 담긴 책들이 우리나라에 역수입되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린이책은 매우 정치적이예요. 당연

히 자문화 중심적이고, 그림책은 그림언어가 담긴 거라서 세계 공용의 보편적인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정말 오해거든요. 미국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만든 책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야 의미있는 책이겠지요.” (최정선)

“저는 문체를 얼마나 잘 살려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번역이 안되는 부분들은 할 수 없다고 봐요. 문화가 달라서 안되는 것들은 역주 같은 걸 달아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가장 안되는 게 언어유희, 말장난이죠.” (최윤정)

“저는 번역을 문화적 선진과 후진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한 사물을 보는, 내지는 한 사건에 접근하는 시각의 다양성을 매개해주려는 노력으로 생각합니다만.” (김경연)



직역이나 의역이나

그런데 “소학사에서 나온 『콩이네의 추수』(1993) 같은 것도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일본 책인 걸 알았을 때 ‘아, 일본 거였구나’ 하는 마음만 드는 게 아니라 자괴감 같은 게 들었어요. ‘마징가 G’가 일본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느낀 실망감, 배신감과 같이” (최영미)라는 견해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이 의견은 등장인물의 이름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창비어린이> 번역특집의 한 쪽지를 이루는 「어린이책을 번역할 때 왜 이름을 바꿀까?」에서는 외국 이름을 버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번역을 하면서 등장인물의 이름뿐 아니라 내용까지 제멋대로 각색하는 영어권의 실태와는 별개로, 제한적이거나 이름을 바꾸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한다.

소학사의 '콩이네' 시리즈에 나오는 알콩, 달콩, 새콩, 짱콩, 해콩, 두리콩, 매콩, 벌콩, 깨콩이 들에게 '~짱', '~사마'와 같은 분위기의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그림책의 재미는 반감되었을 것이다. 또 '쇠돌이'가 없었다면 우린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에게 그렇게 들뜨지 않았으리라.

또, "늘 번역은 우리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손쉽게 중수를 채우는 것, 돈 있는 출판사들이 돈 많이 갖고 가서 사오는 것, 이런 모든 안 좋은 이미지를 다 안고 있고, "번역의 공을 정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번역이 기여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박정선 실장의 의견에는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세계를 번역이 아니면 어떻게 공급하겠어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한테 만날 우리 것만 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박 실장의 주장은 고개를 가웃하게 한다. 아무도 우리 아이들에게 오로지 우리 것만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거니와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세계를" 접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러는 창구가 꼭 번역일 이유도 없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언어유희와 문화 차이의 번역에 관한 사례연구인 한혜정의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말해줄래?」에선 "아동문학의 고전을 우리말로 옮길 때 말놀이 등의 언어유희나 시적 표현,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진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를 『앨리스』를 중심으로 살핀다.

한혜정은 말놀이 번역에도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직역과 우리 문화에 맞게 바꾸는 의역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는 판단을 유보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확실하게 감안하길 바란다. "말놀이를 번역할 때 역자가 의역을 선택했다면 그 말놀이의 효과를 최대한 살려야 하고, 직역을 선택해서 원문을 고스란히 옮겼다면 주석을 통해 원문의 재치있고 풍부한 의미를 빠짐없이 잘 전달해야 한다."

한혜정은 앨리스와 체셔 고양이 의 유명한 대화를 차용하여 아동문학고전 번역의 바람직한 방향을 타진하기도 한다.

앨리스 -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말해줄래?"
체셔 고양이 -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 있어."

그리고는 어느 길이 더 좋고 옳은지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역자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 누구를 위해 그 길을 가려 했는지 끝까지 기억하는 일이 아닐까요." 한혜정은 다시 『앨리스』를 인용하면서 글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을 맺는다. “충분히 오래 걸기만 하면” 목적지에 반드시 닿을 거라며.

신정숙의 「번역 동화의 문장 짚어보기」는 번역 문장 일반론에 가깝다. 동화의 제목과 그림 책의 문장, 그리고 동화 번역문 등에서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는 경우의 사례를 들어 교정했다. 글의 들머리에서는 글쓴이가 들은 강의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표현 급수가 낮은 번역어로 대표적인 것들과 그것의 고급한 번역을 언급한다. 『반지의 제왕』은 ‘절대 반지’ 정도로 표현해야 옳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카라마조프네 형제들’이 맞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운 오리 새끼』! 아무리 오리가 못생겨도 새끼가 뭐니까? 동화책 제목인데, 아기 오리라고 해야지요. 『주홍 글씨』도 웃기지 않아요? 아니, 글씨는 형태고 주홍색은 빛깔 아닙니까? 글씨와 글자도 구별 못해요! 그게 다 표현 급수가 낮은 사람들이 번역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외국문학, 수입된 내부

〈문학과 사회〉(통권 제73호, 2006년 봄호)가 2회 연속으로 ‘외국 문학, 수입된 내부’를 특집으로 다룬 것은 “단순히 외국 문학의 공세로부터 자국어 문학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 때문이 아니다. 또한 출판 시장의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는 시장 추수주의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시장주의와 국가주의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미망에서 벗어나 한국 문학과 문화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일”이, “매우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이어서다.

“출판 시장에서의 외국 문학의 득세와 자국어 문학의 쇠퇴가 주어진 현실이라면, 이 상황을 개탄하기 이전에 차라리 ‘한국 문학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을 통해 외국 문학 역시 지금 소통되는 한국 문학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문학 내부의 다양성과 창조성에 대해 더욱 절실하게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호에 이은 〈문학과 사회〉 2006년 봄호의 번역 특집은 세 편의 글로 이뤄졌는데 이 중 이경훈의 「번역과 번역 문학, 근대와 근대 문학」이 단연 돋보인다. 특히, 언해(諺解)와 번역의 비교 검토가 탁월하다. “요컨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국어나 국문자보다는 ‘언문’으로 기능했다.” 이에 따라 “나랏말싸미중國語에달아”는, 완벽한 조선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국지어음(國之語音). 이호중국(異乎中國)”의 ‘언해’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번역은 아니라는 얘기다.

언해이기는 『용비어천가』도 마찬가지다. “해동(海東) 육룡(六龍)이 느르샤”가 “해동육룡비(海東六龍飛)”로 번역된 게 아니라, 거꾸로 언해한 거라는 것이다. ‘언해’는 “지나(支那) 어학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지나의 고전 문학, 한문학의 기초로서의 한자의 학습을 위하여, 한글로써 그 음 및 뜻을 따라 만든 책”을 가리킨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경훈은 번역과 언해를 아래와 같이 구별한다.

“번역이 통일된 국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다양한 외국어와 대등하게 관계하는(관계한다고 믿는) 언어적·정치적 행위이자 제도라면, 언해는 한문을 중심으로 놓는 입장에서 ‘우민’이라는

내부의 타자를 향해 중화(기원)의 진짜 글을 깨우치고자 하는 또 다른 언어적·정치적 행위이자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랏말 쓰미中 國력에달아’는 국어이기보다는 언문이다.”

한편, 이경훈은 ‘신문학’이 “두 가지 표현 형식을 가진 조선인의 문학 생활의 역사적 종합이요 지양”이라는 임화의 개념 정의를 거론하면서, “‘신문학’은, 언문을 민족어로 전유하고 언해를 번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수립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문학은 뿌리 깊이 번역 문학이다.”

「제도의 그물망에 걸려 날지 못하는 마법 빗자루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해리포터』론에서 허윤진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민담적 성격에 주목한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여러 측면에서 민담의 기본 구조가 교묘하게 변형되는 양상을” 띤다. 대체로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취하는 민담은 권선징악으로 결말이 난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표면상 이러한 민담적 세계관에 충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를 기점으로 선/악, 삶/죽음 등의 이분법적인 대립은

근거를 잃게 된다.” 또한 “어떤 인물도, 어떤 사건도 하나의 의미와 가치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반-민담적인 특성은 서사의 스텔리틱 구성과 결부되어 독자의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허윤진은 『해리포터』 시리즈가 서사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현대적 민담의 판본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3편 이후 드러나기 시작한 이 시리즈의 한계를 지적하는 걸로 대신한다. “해리가 삶의 이면에 있는 죽음에 점차 가까워지고, 사랑의 대상들을 점차 상실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편 이후의 작품들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문학적으로 재현하지 못한 채 3편의 경계적 성격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강유정의 「응고된 부재 사이로 틈입한 도발의 언어—오늘의 일본문학, 왜 읽히는가?」는 지난해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 포함된 외국 소설의 숫자를 일본 소설로 착각해 최근 우리 출판시장에서 일본 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것과 일본 소설의 주된 독자층에 대한 피상적 인식이 아쉽다. (㉠)

